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24호 【루게 제24372호】 주체102(2013)년 11월 20일 (수요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김일성군사종합대학에 새로 건설하고있는 김정일군사연구원을 돌아보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은동지께서는 김일성군사종합대학에 새로 건설하고있는 김정일군사연구원을 돌아보시였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최봉해동지, 인민무력부장인 조선인민군 육군대장 장정남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들인 황병서동지, 마원춘동지가 동행하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를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의 책임일군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력사가 있고 권위가 있는 세계적인 대학인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의 품격에 맞게 김정일군사연구원의 모든 교육시설과 교육환경을 최상의 수준에서 꾸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일군사연구원의 교육시설 뿐만아니라 야외 축구장과 룡구장, 배구장, 실내체육관, 실내수영관, 실내사격관을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이 건설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밝혀주시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직접적인 발기에 의하여 우리 나라 군 사교육의 최고전당인 김일성군사종합대학에 김정일군사연구원이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일떠서고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건설이 마감단계에 이른 교직원청사, 연구생청사, 강습소, 회관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정력적인 령도

와 보살피심속에서 창립되고 강화발전되어온 김일성군사종합대학에 우리 당의 믿음직한 군사일군양성의 중심 기지인 김정일군사연구원을 일떠세우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의 의도에 맞게 김정일군사연구원을 훌륭히 완공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11일부터 13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중국보도사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4차 적공군열성자회의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신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적공군열성자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눈가 보전말건 조선로동당과 수령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사회주의제도옹위의 전초선을 믿음직하게 지켜가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참가자들이 선군혁명위업의 최후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안고 자기들앞에 맡겨진 무거운도 영예로운 사명을 다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중국의 홍콩 봉황위성TV방송도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중국보도사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11월2일공장을 현지지도하신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연혁소 개실을 돌아보시면서 공장에 현대적인 간식생산공정까지 꾸려진으로써 한평생 군인들의 먹는 문제를 두고 마음써

오신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념원을 풀어 드릴수 있게 되었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사탕작업반, 과자작업반을 비롯한 공장들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기업관리와 경영활동을 짜고드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현대적인 감시, 조정, 지령체계를 철저히 세워 생산공정의 컴퓨터화, 무인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또한 군인들에게 맛있고 영양가 높은 간식과 식료품을 떨구지 않고 공급하자라는것이 조선로동당의 결심이라고 하시면서 공장의 생산능력이 확장되는데 맞게 생산량을 높이고 그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중국의 홍콩 봉황위성TV방송, 로씨야의 이따르-따스통신, 일본의 교도통신도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소리》 방송, 나이제리아주제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명록동지의 서거 3돐에 즈음하여 인민무력부혁명사적관에 있는 《최고사령관과 전수관》을 찾으신 소식을 전하였다. 나이제리아주제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전투일부수행에 희생된 조선인민군 해군 제790군부대 용사들의 묘를 찾으신 소식, 주성호동무가 사업하는 선박공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 마시명스기장건설장을 또다시 돌아보신 소식도 올렸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추수선수들이 계절에 구애됨이 없이 혼련과 경기를 원만히 하도록 하지만 추수경기장들에 질 좋은 인공잔디를 깔아주는것이 좋다고 말씀하시였다. 중국의 추수경기장, 운동장들을 만경봉체육단의 인공잔디를 추수경기장처럼 꾸리자면 질 좋은 인공잔디를 대량적으로 생산하는 기지를 건설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를 가르쳐주시였다. 미국의 추수경기장, 운동장들을 만경봉체육단의 인공잔디를 추수경기장처럼 꾸리자면 질 좋은 인공잔디를 대량적으로 생산하는 기지를 건설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를 가르쳐주시였다. 미국의 추수경기장, 운동장들을 만경봉체육단의 인공잔디를 추수경기장처럼 꾸리자면 질 좋은 인공잔디를 대량적으로 생산하는 기지를 건설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를 가르쳐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높은 열의와 적극적인 참가에 자기 사업을 원만히 수행한 대회참가자들을 열렬히 축하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그이께서는 과학자, 기술자들이 조선로동당과 조국앞에 지닌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과학기술성과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앞당기며 조선의 존엄과 위상을 떨치는데 적극 기여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조선중앙통신】

중국의 홍콩 봉황위성TV방송, 인터넷홈페이지 인터넷망도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중국보도사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로 꾸리고있는 만경봉체육단의 추수훈련장을 돌아보신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추수선수들이 계절에 구애됨이 없이 혼련과 경기를 원만히 하도록 하지만 추수경기장들에 질 좋은 인공잔디를 깔아주는것이 좋다고 말씀하시였다. 미국의 추수경기장, 운동장들을 만경봉체육단의 인공잔디를 추수경기장처럼 꾸리자면 질 좋은 인공잔디를 대량적으로 생산하는 기지를 건설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를 가르쳐주시였다. 미국의 추수경기장, 운동장들을 만경봉체육단의 인공잔디를 추수경기장처럼 꾸리자면 질 좋은 인공잔디를 대량적으로 생산하는 기지를 건설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를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조선인민군 제354호식료공장 종업원들의 필기모임 진행에 대하여 말씀하였다. 공장의 여러 생산공정을 돌아보시면서 생산에서 위생성이 보장되고 자동화, 무인화가 실현되어 종업원들이 힘든 노동에서 해방되었다고 못내 기뻐하시며 자랑하고싶은 본보기공장, 식료공장의 표준공장이자 높이 평가해주시였다고 강조하였다. 공장의 관리운영과 생산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마련해주고 공장이 나아갈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공장로동자들에게 대를 두고 길이 전할 뜨거운 사랑을 거듭 안겨주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김정일대원수회고 민주쟁고위원회 결성

위대한 김정일대원수회고 민주쟁고위원회 결성이 6일 김사에서 진행되었다. 결성식에는 민주쟁고의 여러 정당, 단체인사들이 참가하였다. 결성식에서는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민주쟁고공산당 중앙위원회 부총비서인 민주쟁고-조선친선 및 반대성협회 위원장 오메때 가스통 음보요가 선출되었다. 회고위원회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2돐에 즈음하여 불례전을 발행하며 회고모임, 영화감상회 등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은 머지않아 인류는 세계자유화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의 서거 2돐을 맞이하게 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김정일대원수의 한평생은 오로지 인민의 행복과 나라의 번영, 세계자유화위업을 위해 바쳐진 위대한 혁명가의 한생이

였다. 김정일대원수께서는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김정일대원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자주시대 지도사상으로 심화발전시키시어 정의와 진리를 위해 싸우는 혁명적인인민들에게 사상리론적무기를 안겨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의 불멸의 사회주의강성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세계 진보적인인민들로부터 주체사상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간직하고 착취와 억압이 없는 새 사회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게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시대와 력사앞에 쌓아올린 불멸의 업적은 세계자유화위업과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다. 우리는 사상리론의 영재이시며 결출한 정치가이신 김정일대원수께 다함없는 경도심을 표시한다. 김정일대원수께서 밝혀주시는 주체의 길, 자주의 길을 따라 진보적인인류는 변함없이 전진할 것이다. 【조선중앙통신】

맛 좋고 영양가 높은 당과류를 더 많이 생산하여 군인생활향상에 이바지하자

조선인민군 제354호식료공장 종업원들의 필기모임 진행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조선인민군 제354호식료공장 종업원들의 필기모임이 18일에 진행되었다. 인민무력부 일군들,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지배인 김해란의 보고에 이어 작업반장 리화란, 로동자들이 리경숙, 최옥금이 결의토론을 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강성국가건설을 앞당기기 위하여 애국헌신의 길을 이어가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뜻깊은 어머니날에 거룩한 현지지도의 자욱을 공장에 새기신

데 대하여 말씀하였다. 공장의 여러 생산공정을 돌아보시면서 생산에서 위생성이 보장되고 자동화, 무인화가 실현되어 종업원들이 힘든 노동에서 해방되었다고 못내 기뻐하시며 자랑하고싶은 본보기공장, 식료공장의 표준공장이자 높이 평가해주시였다고 강조하였다. 공장의 관리운영과 생산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마련해주고 공장이 나아갈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공장로동자들에게 대를 두고 길이 전할 뜨거운 사랑을 거듭 안겨주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현지지도에서 주신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해나갈 굳은 결의를 피력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계시어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라는 확신을 간직하고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높은 생산성과로 당의 선군혁명위업을 받들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생산공정의 무인화, 무군화를 더 높은 수준에서 완성하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다녀가신 영광의 일터를 잘 관리하고 생산문화, 생활문화확립에서 전국의 앞장에 설것이라고 말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조국보위초소에서 위훈을 떨쳐가고있는 인민군인들을 위한 일을 더 많이 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높이 대중운동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기 위한 투쟁에 한걸음이 떨쳐나설것이라고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높은 신 뜻의 불길을 더 많이 생산하여 군인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조선중앙통신】

백두산혁명명승지의 영웅적기상 떨치며 힘차게 전진

마식령스키장건설에 참가한 군인건설자들

조선인민군 김명호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현지말씀판필에 떨쳐나 전진 실적을 올려보고있다.

조선인민군 김명호소속부대에서

로운 일당백공격속도, <마식령속도>를 창조하라! 부대지휘관들은 한사람같이 예견된 기일보다 건설공사를 앞당겨 끝낼것을 결의해나섰다.

실천을 통하여 군인건설자들의 정신력을 폭발시킬 때 산도 때칠고 바다도 메울수 있다. 가열장전들의 불꽃을 불조종사를 앞당겨 끝내 사실만 보이도록 할수 있다.

산정에 올려가는 승리의 메아리

마식령전역에서 지극 영웅적조선인민군 장병들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현지말씀판필에 떨쳐나 전진 실적을 올려보고있다.

모든 것들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현지말씀판필에 떨쳐나 전진 실적을 올려보고있다.

조선인민군 김창호소속부대에서

해야 하는 일은 그야말로 힘에 부치는 일이었다. 모두가 사도락기공포사를 휘젓고가는 결의에 찬 얼굴들이었다.

《동무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들어!》

얼마전 마식령스키장건설을 도맡고있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스키장건설에 참가한 전체 건설자들은 모두가 애국자들이라고, 그들이 세운 위훈은 보장조국건설혁명을 길이 남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세계일류급의 스키장을 위해!》

이것이 마식령스키장건설에 열매를 맺어준 모든 사람들이다. 그들이 세운 위훈은 보장조국건설혁명을 길이 남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의료봉사활동을 끊임없이 개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의료방기관이 기본임무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치료에방사선을 잘하는것입니다.》

산부인과에서는 무통해산약물과 기구들을 충분히 갖추어 놓아 산모들이 아픔을 느끼지 않고 태아를 안전하게 출생하게 하고있다.



민생생활향상에 이바지할 열의를 안고 과학연구사업에 지혜를 합쳐가고있다. - 국가과학원 합동분원에서 - 본기자 신홍혁 찍음

서울앞에 선 손님들의 밝은 모습

연산군 은덕원을 찾아서

서울앞에 서서 한걸음 걷기만 해도 기쁨을 금지 못하게하고있다.

사람과 온정이 인민들에게 더할 나위없도록 하기 위하여 은덕원의 종업원들은 봉사활동을 하는 바쁜 속에서도 자체의 힘으로 실내물물자량을 새로 번듯하게 건설하고있다.

전국체육과학기술성과전시회 개막

【평양 11월 19일발 조선중앙통신】 전국체육과학기술성과 전시회가 개막되였다.



변함없는 개척자의 모습

세포동관건설전투장에서 헌신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는 돌격대원들은 인민봉사총괄부대 김승영동무도 있었다.

완강한 전개력을 지닌 인민의 참된 복무자

신천군량정사업소 지배인 류철동무

얼마전 신천군량정사업소의 경향은 일반화하기 위한 전국적인 보급사업이 시작되였다.

로동신문 대표단 귀국

【평양 11월 19일발 조선중앙통신】 월남을 방문하였던 리경섭 부주필을 단장으로 하는 <로동신문> 대표단이 19일 귀국하였다.



로동신문 대표단 (오른쪽에서 두번째) 류철동무

